

낙동강 본류 유류유출 대비 관계기관 합동 방제훈련 실시

- 낙동강에서 탱크로리 전복·유류 유출 가정, 현장 대응체계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월 19일 낙동강(사문진교 일대, 대구시 달성군 소재)에서 관계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6년 을지연습(8월 18~21일)과 연계하여, 적의 무인 드론 폭격으로 인해 성주대교가 파손되면서 지나가던 탱크로리차량이 전복되어 차량에 탑재된 경유 약 2,000L가 낙동강 본류로 유출·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훈련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낙동강물환경센터)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서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제2작전사령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실제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사고 상황 전파, △초동대응(인명구조 및 오일붐·흡착포 등 초동 방제작업), △차단선 구축, △시료채수 및 분석 등 단계별 임무를 수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낙동강은 영남권 주민들의 주요 상수원인 만큼, 비상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완벽한 방제태세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을지연습 연계 합동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합동방제훈련 개요.

2. 참고사진(2026년 5월 합동방제훈련, 전남 나주 영산강).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과 장	신태상 (044-201-7060)
		담당자	사무관	김영범 (044-201-7061)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송현 (053-230-6510)
		담당자	팀 장	박병률 (053-230-6563)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부	책임자	부 장	김홍성 (032-590-3901)
		담당자	과 장	박진규 (032-590-3903)



□ 추진 배경

- (국가 비상사태 시 상수원 보호) 전시 적의 도발로 인한 대규모 수질오염 발생 시 낙동강 수질 악화로 국민 생명·안전 위협 우려
- (민·관·군 위기대응 역량 강화)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전시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 실시로 신속한 공조체계 및 실전대응능력 강화

□ 훈련 개요

- 일시 : 2026.8.19.(수) 10:30~12:00
- 장소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사문진교(낙동강 본류)
- 참여 : 총 9개 기관(80명)
 - 주최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참여대구시, 달성군, 참여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센터, 제2작전사령부, 달성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 훈련 주요내용

○ (훈련상황)

'26.8.19.(수) 10시30분경, 적의 무인 드론 폭격으로 성주대교가 파손되어 지나가던 탱크로리차량이 전복되어 낙동강으로 유류가 유출됨

- ① (유류유출) 낙동강으로 경유 2,000L 유출
- ② (인명피해) 탱크로리 운전자 1명 중상

○ (훈련흐름도)



□ 훈련장 위치 및 훈련 상황도

훈련 대상시설 위치도(취수원 위치)	훈련 대상시설 전경
	





훈련 전경



저지선 구축



유처리제 살포



폐사어 수거